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선포한 불멸의 업적

최 수 남

주체37(1948)년 2월 8일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인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3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은 해방된 우리 나라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특히 적들이 우리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행복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난관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2권 15페이지)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정규무력건설사상과 로선으로 민족군대창설의 길을 뚜렷이 밝혀주신것이다.

강력한 민족군대가 없이는 외래제국주의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할수 없으며 망국노의 신세를 면할수 없다. 우리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던 중요한 리유도 바로 강력한 민족군대를 가지고있지 못한데 있었다.

력사의 교훈은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정규화된 혁명무력, 강력한 민족군대를 건설하여야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에서도 조선혁명의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에서 건당, 건국과 함께 건군을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업》,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임무》,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적인 정규군대를 창건하자》를 련이어 발표하시여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기술로 장비된 혁명적정규군대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규무력건설리론에 관통되어있는 근본사상은 혁명무력을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그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며 인민과 혈연적으로 결합된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만들며 현대전을 수행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새로 창건되는 정규무력은 혁명위업을 개척하는 력사적투쟁에서 이룩된 혁명전통을 철저히 계승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참다운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결합되어있으며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며 전사들사이, 군관들사이, 군관과 전사들사이에 육친적사랑과 우애가 차넘치고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단결되어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정치사상적각오와 계급의식이 높고 열렬한 애국주의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는것이 혁명적정규무력이 갖추어야 할 정치사상적품모이라는것을 밝히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각 군종, 병종부문을 다 꾸리고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추며 모든 군인들이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기초우에서 건장한 체력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령활한 전술을 소유하고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 강한 군사규율을 확립하는것을 혁명적정규군이 갖추어야 할 군사기술적면모로 규정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정규무력건설에 관한 리론은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성과 현대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리론이며 혁명무력건설에서 사람을 기본으로 보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한 독창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력건설로선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정규무력으로 창건된 첫 시기부터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무력, 백두의 혁명정신을 영원한 념과 숨결로 간직한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건설될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주체적립장에서 정규화적면모를 갖추어 해방된 조국땅에 강력한 무력건설의 담보를 마련하신것이다.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갓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 정규무력을 창설하는 과정에 부닥친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리에게는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기술로 무장한 군사정치간부가 부족하였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자체의 힘으로 정규군을 창설할수 없다고 하거나 아직 남북이 통일되지 못했는데 무슨 군대가 필요한가고 하면서 정규무력건설을 방해하였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국제관계를 악화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당이 자체의 힘으로 정규무력을 창설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으며 북조선에 쏘련군대가 주둔해있는 조건에서 자체의 무장력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고 시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모든 궤변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정규무력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시였다.

우리에게는 정규무력을 건설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첫 상비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불패의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신 혁명무력건설의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 자기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하였으며 유격전만이 아니라 현대전의 풍부한 경험도 소유하고 주체전법으로 무장한 간부군대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당과 인민의 정권이 있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혁명무력건설전통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비상한 건군열의가 있기에 얼마든지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신속히 건설할수 있다는 억척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시고 정규무력건설에서 시종일관 자력자강의 원칙을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규무력건설에서 요구되는 간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창설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자체의 민족군대, 정규군건설에서 제일 긴요한 문제로 나선것은 정규무력건설에서 골간이 될 지휘성원, 간부문제를 빨리 해결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육성하신 항일혁명투사들은 해방후 정규무력건설에서 큰 밑천으로 되였다. 그러나 정규무력건설을 위해 수많이 요구되는 군사정치간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를 창설하고 정규무력의 골간이 될 군사정치간부들을 빨리 키워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4(1945)년 11월 평안남도 룡강군 다미면 지율리에 나가시여 첫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로 될 학원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그 이름을 《평양학원》이라고 지어주시였으며 학원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교육사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해방된지 석달만에 정규무력건설에 이바지할 첫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인 평양학원이 창설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품소 평양학원의 명예원장이 되시여 학원의 교육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1월초에 평양학원에 나가시여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제1기 첫 강의를 하시였으며 2월에는 학원개원식에 참석하시여 축하연설에서 학원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평양학원은 창설되여 얼마 안되는 기간에 정규화적면모를 갖춘 군사정치간부양성의 모체기지로, 정규군대의 시초로 꾸러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학원에서 군사간부양성기능을 분리하여 중앙보안간부학교를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봄 정규무력건설의 골간을 키워낼 구상밑에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창설을 발기하시고 강서군 성암면 대안리에 나가시여 학교터전을 잡아주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5(1946)년 7월 보병, 포병, 공병, 통신병 등 각 병종과 전문병 군사간부를 키워내는 중앙보안간부학교가 창설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시기 군사간부양성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군사교육을 그 어느 나라식도 아닌 조선식으로 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중앙보안간부학교의 군사교육이 사대주의, 교조주의적경향을 극복하고 주체적관점에서 우리 식으로 진행됨으로써 군사간부양성의 질적수준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주체 36(1947)년 10월 제1기 졸업식을 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군, 공군건설에 필요한 군사간부양성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3월에 평양학원에 항공반을, 이듬해 7월에는 수상보안간부학교를 내오시여 공군과 해군의 군사간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낼수 있게 하시었다. 그리고 군사교육기관들에 당조직을 내오고 당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평양학원이 창설되고 그를 모체로 군사간부 양성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정규무력건설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군사정치간부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규무력의 핵심부대, 보안간부훈련소를 내오고 필요한 군종, 병종부대들을 편성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었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1945년 11월 《군정청》안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되고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하여 괴뢰군을 조작하려고 획책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정규무력의 핵심부대인 보안간부훈련소를 조직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8월 항일혁명투사들에게 정규무력의 핵심부대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핵심부대의 조직원칙과 규모, 부대의 조직위치 등을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새로 조직하는 부대명칭은 보안간부훈련소라고 하며 그 지휘기관이름을 보안간부훈련대대부로 하도록 하시었다. 9월초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력량과 평양학원에서 키워낸 군사정치간부들을 핵심으로 하여 보안간부훈련소를 내오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개천, 라남, 평양에 보안간부훈련소 1소, 2소, 3소가 조직되고 신의주, 정주, 강계, 회령, 함흥, 성진 등 여러곳에 관하 분소들이 나오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보안간부훈련대대부안에 문화부를 내오고 훈련소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게 하시였으며 항일혁명투사들을 대대부사령관, 참모장, 문화부사령관으로 임명하시고 훈련소와 분소들에도 파견하시었다.

보안간부훈련소는 인민의 참다운 무장력이였으며 앞으로 건설될 정규무력의 핵심부대였다. 보안간부훈련소가 조직됨으로써 정규군부대들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는 핵심부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었으며 장차 정규무력의 대련합부대들을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정규무력건설에 필요한 군종, 병종부대들을 조직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안경비임무를 수행하는 보안대를 수상보안대로 부르게 하고 서해와 동해에 각각 수상보안대를 내오도록 하시었다. 수상보안대의 조직으로 해군무력의 핵심부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1월 신의주항공협회를 찾으시고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시고 평양과 신의주, 함흥, 청진, 회령 등 여러곳에 항공기술자들과 노동자, 농민출신의 청년들로 항공협회지부를 내오게 하시였다. 주체34(1945)년 12월에는 그것을 통합하여 조선항공협회를 결성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6(1947)년 8월 20일 평양학원 항공반졸업생들과 항공기술자들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평양학원비행대가 조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군종부대들과 함께 포병, 공병, 통신병 등 정규무력의 여러 병종부대들을 편성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적극 추진시키시였으며 새로 조직된 군종, 병종부대들에서 우리 식의 군사규정과 교범, 부대지휘관리방법과 전법을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정규무력의 핵심부대인 보안간부훈련소가 조직되고 각 군종, 병종부대들이 편성됨으로써 해방된 조국땅에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정규무력건설의 물질적토대를 닦아놓으신것이다.

당시 우리 인민이 일체로부터 넘겨받은것이란 다 파괴된 보잘것없는 공장, 기업소와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농촌경리, 혼란된 철도운수 및 체신기관들과 장부만 남은 빈 금고뿐이였다. 이런 형편에서 현대적인 군종, 병종을 다 갖춘 정규군부대들을 대대적으로 조직 확대한다는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피복과 식량을 모두 남에게 의존할수는 없었으며 나라의 경제형편이 풀릴 때까지 정규군건설을 뒤로 미룰수는 더욱 없었다.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물질적수요도 군인들과 인민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해결해나가시였다.

현대적정규무력의 핵심으로 되는 자주독립국가의 방위력은 자체의 국방공업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정규군대를 창설하려면 무기와 전투장비, 기술기재 등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군사인원과 무장장비는 무력건설의 2대구성요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10월초 평양시 평천리에 나가시여 주체적인 병기공업창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주체36(1947)년 6월에는 병기공장조직에 대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명령을 하달하여 첫 병기공장창설을 선포하도록 하시였다.

병기공장로동계급은 주체36(1947)년 10월 자체의 힘으로 첫 기관단총시제품을 생산하였다.

해방직후 강선길에 앞서 평천길을 먼저 걸으시며 우리 나라 병기공업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빈터우에서 정규적혁명무력이 건설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피복,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들도 우리 인민의 높은 건국열의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증산경쟁운동의 불길을 높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알곡들을 내는것으로써 군대에 소요되는 군수물자들을 제때

에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망국노의 쓰라린 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지난날의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정규군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군대를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정규무력창설을 위한 모든 준비가 성과적으로 끝났으며 마침내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할수 있었다.

주체37(1948)년 2월 8일 열병식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간 조선인민군은 근로인민의 아들딸들로 꾸려졌으며 현대적군종, 병종을 다 갖추고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나 규률면에서 우수한 혁명군대였다.

갓 해방된 조선에서 3년도 안되는 기간에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한것은 세상을 놀래운 기적이였다.

정녕 2월 8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조선민족이 자기 손으로 능히 부강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할수 있으며 자기 조국을 세계선진국가들의 대렬에 올려세울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한 민족사적패거의 날로 역사에 새겨지게 되었다.

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백두의 밀림에서 첫걸음을 뗀 우리 혁명무력이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위력과 면모를 보다 완벽하게 갖추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적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통일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키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 목표로 제시하시고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군업적은 세세년년 더욱 빛을 뿌릴것이며 우리 인민군대는 불패의 혁명강군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쳐나갈것이다.

실마리어 정규적혁명무력, 군사교육기관